파견기간	2025 학년도 1 학기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2-16859
파견국가	캐나다		소 속	조선해양공학과
파견대학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성 명	정나영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살아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고, 학부 졸업 이후 유학도 고려하고 있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대학의 수업 방식과 생활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25-1 학기 교환학생에 지원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를 다녀왔습니다. 지원을 고려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영어권 국가 파견을 희망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정도가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미 국가 파견을 희망하여 비교적 인종 차별이나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캐나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토론토와 밴쿠버 중 고민했는데, 파견 시기가 겨울인 만큼 동부의 추위보다는 서부가 나을 것으로 판단하여 밴쿠버에 위치한 UBC 를 선택했습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UBC 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중 밴쿠버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캠퍼스가 서쪽 끝에 위치해 있다보니, 다운타운이나 Richmond, Burnaby 등 BC 주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캠퍼스가 크고, 바다와 접해 있으며, 여러 정원과 숲이 존재해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밴쿠버는 BC 주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인종 구성이 다양하며 아시아계의 비중이 높습니다. 겨울에 한국보다 기온이 높은 편이지만, 캠퍼스의 경우 바다와 접해 있어 바람이 많이 불어 기온에 비해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비가 자주 내립니다. 도심에서도 산과 바다의 풍경이 펼쳐지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분위기의 도시입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캐나다의 경우, 한 학기 교환학생은 여행비자로 수학이 가능하여 따로 번거롭게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 년 교환학생의 경우, 학교 측에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여 캐나다 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study permit 을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UBC 의 기숙사 신청은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메일을 통해 안내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주로 메일을 통해 안내되기 때문에 메일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4/25 term 2 의 경우, 기숙사 지원은 acceptance letter 가 오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50 CAD 의 application fee 를 내고 기숙사를 신청하며. 사이트를 통해 선호하는 기숙사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한 학기 파견의 경우, 기숙사 합격은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기숙사가 굉장히 많은데, 교환학생은 일반적으로 Walter Gage 혹은 Fairview 로 배정받습니다.
Walter Gage 는 한 층에 4 개의 unit 이 있고, 각 unit 에 6 인 6 실을 가지고 화장실과 거실,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Fairview 는 한 집에 4-6 명이 사는 걸로 알고 있고, 주택형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자 방이 존재하고, 화장실과 거실, 주방은 공용입니다.

저는 Walter Gage 에 살았는데, 버스 정류장과 Nest(학관과 유사), 기타 시설들과 가까워 매우 좋고 편리했습니다. 바로 앞에 팀홀튼이 있고, 건물 내 로비에는 무인 편의점과 자판기가 있어서 종종 이용했습니다. 로비에 공용공간이 많아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에 좋습니다. 또한, 운이 좋으면 창 밖으로 바다가 펼쳐진 엄청난 뷰를 가진 방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파견이 확정된 이후, 내야하는 비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MED 와 UPass 입니다. iMED 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으로 한 학기 동안 커버가 가능하고, 비용은 약 350 CAD 입니다. UPass 는 교통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UPass 의 비용을 내고 밴쿠버의 교통카드인 compass card 에 업로드하면,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따로 충전할 필요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UPass 는 약 180 CAD 정도로 총 약 550 CAD 를 지불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숙사비로, Walter Gage 6 인 6 실 기준으로 한 달에 약 1000 CAD, 1 월부터 4 월까지 총 4000 CAD 를 지불했습니다. (신용카드 fee 가 붙어 4000 CAD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1) 항공권 예매 및 숙소
항공권은 다들 잘 알겠지만,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기 시작보다 조금 일찍 (12 월 말) 출국할 경우, 연말이라 숙소비가 비싸기 때문에 취소 및 변경 가능으로 숙소를 예약해두거나, 기숙사에 미리 메일을 넣어 early arrival 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로밍 및 esim
저는 캐나다 교환학생 로밍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수퍼셀을 통해 esim 을 구매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할 때 사이트 회원가입과 같이 캐나다 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번호를 발급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주요 정보 확인

앞서도 언급했지만, 출국 전 기숙사 신청이나 수강신청 등 중요한 사항은 모두 이메일을 통해 공지되기 때문에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문의사항을 메일로 넣었을 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밴쿠버 현지 시간 9-10 시 정도에 맞추어서 한 번 더 메일을 넣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은 시기가 다가오면 이메일을 통해 안내됩니다. 이메일에 있는 course survey 링크에서 1~10 순위까지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입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파견 가는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은 UBC 의 포털과 비슷한 Workday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Rate My Professors 라는 웹사이트에서 교수님의 강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이수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목을 잘 확인하신 후, 설문조사 링크에 입력하면 됩니다. 단과대학과 소속 학과에 따라 과목이 확정되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대학 소속인 저의 경우 12 월 중으로 확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기가 시작한 이후 약 2 주의 수강 변경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때 수강과목 추가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1) Biosignals and Systems (ELEC 422)

제목 그대로 Biosignal 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초반에는 인체 내 여러 시스템, 신호에 대해 대략적으로 훑으시고, 중반부부터는 ECG 와 같은 시그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신호처리에서 배우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수업의 후반부에는 Matlab 을 통해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팀프로젝트를 한 번 진행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듣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경우 총 인원이 7 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학생들의 이해도를 체크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질문 또한 잘 받아주십니다.
총 4 번의 퀴즈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팀프로젝트 1 회가 진행되었으며, 할 것이 많아보이지만, 생각보다 학업적 부담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Biosignal 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도 아주 기초부터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Electromagnetic Fields and Waves (ELEC 311)

마찬가지로 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주시기 보다는 플립러닝과 비슷한 느낌의 수업입니다. 교재와 자료를 미리 읽어오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끼리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 교수님의 본래 의도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거의 매 수업마다 연습문제를 나눠주시고 그것을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고사 2 회와 기말고사, 간단한 실험 보고서 2 개 제출, 문제 풀이 과제 제출 정도가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학업적 부담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3) Economic Analysis of Engineering Projects (ELEC/CPEN 481)

해당 과목은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그냥 경제 개념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신청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한국어로도 어려운 재무관리스러운 내용을 영어로 해야해서 다소 어려움이 느껴졌지만, 경제적 지식이 충분하신 분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수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 9 회, 기말고사, 팀 프로젝트 1 회(Business Proposal)가 진행되었고, 과제 9 회가 최종 점수에 반영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과제와 팀 프로젝트 정도만 신경써서 하면 큰 무리가 없는 수업입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1) 상비약

Rexall 이나 Shopper 에 가면 간단한 상비약은 구매할 수 있지만, 진료를 받으려면 꽤 까다롭기 때문에 필요하신 약이 있으면 한국에서 미리 챙기거나 처방 받아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생활용품 및 의류

한국이 캐나다에 비해 생활용품 및 의류가 가격 대비 품질이 좋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챙겨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용품의 경우는 수건이나 거울, 필기구, 슬리퍼, 머리끈, 화장품 등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는 여러 겹으로 껴입을 수 있는 옷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온 자체는 많이 낮지 않지만, 비가 자주 오고 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방수 및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옷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방수가 되는 신발이 있다면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학교에 무료로 이용 가능한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복도 가져오면 좋습니다.

3) 그 외

침구나 조리도구, 식재료 등은 대부분 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조리도구의 경우, 룸메이트와 공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재료의 경우, 챙겨가시면 적응 초기에 요리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티백이나 코인육수, 고추장, 불닭소스 등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한국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입니다. 외식을 자주 할 경우, 음식 가격에 세금, 팁이 추가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꽤 큽니다. 생활용품이나 카페, 화장품 등의 가격이 저렴한 가게를 이용한다고 해도 한국보다 높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1) 식사

캠퍼스 내부에 다양한 식당이 존재합니다. 주로 NEST 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H 마트 근처에도 여러 가지의 식당이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양이 많고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외식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식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교내의 Save on Foods 나 캠퍼스 근처의 no frills 와 같은 식료품점에서 식재료를 사서 요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Nest 지하에 있는 푸드뱅크에서 주 2 회 식재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신청하는 것도 식비를 아끼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2) 은행
송금을 할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싶으시다면 캠퍼스 내에 있는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TD, RBC, CIBC 등 대체로 많은 은행이 상담을 예약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싶다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도 발급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계좌 개설 이외에는 주로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트래블 카드들을 사용하면 문제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혹시 카드가 안될 상황을 준비하여 MASTER/VISA, 충전형 트래블 카드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1) 교내 행사
UBC 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사 일정에 관한 정보는 이메일, 기숙사나 동아리, 단과대 등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 초반에 교환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제공되므로 그 때를 잘 활용하면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기숙사 내에서도 (Walter Gage 의 경우) 음식을 제공하거나, 간단한 crafts 를 하는 행사가 자주 열리기 때문에 이 때를 잘 활용하면 룸메이트와 친해지거나, 기숙사에 사는 다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2) 동아리
동아리의 경우, 학기 초반에 club fair 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term 2 의 경우 아주 많은 수의 동아리가 모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동아리가 있다면 club fair 를 활용하거나, 따로 해당 동아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하여 지원이 가능한 지 문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체육활동 및 행사
UBC 에는 체육관이 크게 두 개가 있으며, term 2 기준 약 50 CAD 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 학기 내내 이용 가능합니다. Aquatic Center 의 경우, 학생증만 있으면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배드민턴이나 배구 등 스포츠를 그때그때 즐길 수 있는 Drop in program 이라는 것도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열리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캐나다의 대표 스포츠인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립니다. 그 외에도 농구, 배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열립니다. 홈 경기를 할 경우, 캠퍼스 내 경기장에서 대부분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3 월 말에는 Storm the Wall 이라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로 장거리/단거리 달리기, 자전거, 수영 릴레이 경기를 하고 마지막에 학관 앞에 설치된 벽을 넘는 행사입니다.

4) 여행
밴쿠버 근교는 당일치기로 한 군데씩 다녀오기 좋습니다. 근처에 공원이나 등산로, 바닷가 (Stanley Park, Lynn Canyon, White Rock, Lighthouse Park)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며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2025 년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1, 2 월 날씨가 좋아 여러 곳을 다녀오기 좋았지만, 일반적으로 term 2 기간 동안에는 비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잘 참고하여 여행을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간고사 전후로 한 주 동안 수업이나 시험이 없는 Reading week, 부활절 전후로 4 일의 휴일이 term 2 의 주요 연휴입니다. 길게 쉬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캐나다 동부나 미국 등, 4 박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여행을 많이 다녀오는 편입니다. 또한, 수업 스케줄을 잘 조절하여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활용해 2 박 정도의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밴쿠버의 경우, 미국의 워싱턴주와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당일치기나 1 박 2 일 정도로 시애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고 3 시간 정도만 가면 되기 때문에 미국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ESTA 를 미리 준비하시며 좋습니다.

저의 경우, 학기 중 당일치기로 시애틀에 다녀왔고, 목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뉴욕, 1 박 2 일로 빅토리아, 그리고 기차에서 1 박을 하는 기차여행을 다녀왔습니다. Reading break 때는 2 박 3 일로 스키장으로 유명한 휘슬러, 3 박 4 일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옐로나이프에 다녀왔고, 그 외에도 당일치기로 BC 주에 있는 Grouse Mountain, Stanley Park, Lynn Valley, Fort Langley, Deep Cove 등을 다녀왔습니다. 저의 경우, 학기가 끝나고 캐나다 동부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기 중 동부를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그럴 예정이 없으신 경우에는 학기 중에 동부 여행을 틈틈이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캠퍼스의 경우,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라면 학생들이 어느정도 돌아다니는 편이라 무섭지 않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에 혼자서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다운타운의 경우, 거리에 홈리스가 꽤 있으며, 곳곳에서 마약 냄새를 자주 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은 골목길은 최대한 다니지 않아야 하며, 차이나타운이나 Hastings (특히 East Hastings)는 치안이 특히 안좋은 곳이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은 가급적 낮 시간에도 혼자서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혼자서도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의 교육 방식을 경험해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학우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표현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의 교류는 저의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무색하게 교환학생을 다녀온 지난 4 개월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교환학생을 통해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 년 **6** 월 **4** 일
지원자	정나영 (인)

정나영